제8강 최인호 「술꾼」

(1교시)

최인호 「술꾼」/ 『타인의 방』

1. 작가연보

1945년 서울 출생
1963년 서울고 2년, 단편「벽구멍으로」<한국일보> 신춘문예 입선
1967년 단편「2 1/2」<사상계> 신인문학상 수상
「견습환자」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1973년「타인의 방」,「처세술 개론」현대문학상 신인상 수상
1982년「깊고 푸른 밤」제6회 이상문학상 수상
1997년~ 현재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전공 겸임교수

2. 작가경향

최인호의 문학세계는 1970년대에 진행된 산업화와 관련되어 본격소설과 대중소설이라는 양면성을 띤다. 시대적 아픔을 희극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독특한 시나리오 세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의 모든 작품들은 독자의 감수성에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현란한 원색의 매력으로 충만해 있으며, 현대 도시인의 의식 속에 숨겨진 성감대를 찾아내고 그것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데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 과장된 수사, 팽팽한 속도감, 관능적인 분위기, 생동하는 문체, 흥미 만점의 구성까지 어느 하나 오늘날의 대중에게 어필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의 문학이 다수의 독자에게 박수를 받으며 가장 애호 받는 품목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3. 줄거리

6.25 전쟁고아인 주인공은 피를 토하고 쓰러진 어머니를 본 후 술집을 찾는다. 아버지를 부르기 위해서이다. 아이는 술집을 돌며 한잔 두잔 술을 들이키지만 밤이 새도록 아버지는 찾을 수 없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4.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5. 문체의 특징
뛰어난 인물 묘사, 사투리를 이용한 향토적 문장

▲ 직유의 적절한 사용(참신한 표현에 유의)

6. 묘사력
- 그 녀석은 지독하니 못생긴 녀석이었다. 머리는 기계충의 상흔으로 벽보판처럼 지저분했고, 중국식 소매에서 빠져 나온 작은 손은 때에 절어 잘 닦은 탄피처럼 번들거렸다. (p.6)

- 갑자기 꼬마의 얼굴이 대백과사전 한 페이지처럼 충만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전진하는 인형 병정 같은 몸짓이었다. (p.7)

- 아이의 손은 허물 벗는 애벌레처럼 그 중국식 소매 속에서 슬그머니 솟아 나와, 시장판 소매치기꾼들이 슬쩍해가듯 술잔을 들어 잽싸게 잔을 비웠다. (p.9)

- 구레나룻은 별로 놀란 기색도 없이 수염 속에서 종이 먹는 양처럼 소리 없이 웃었다. (p.14)

- 아이는 이제 태엽 풀린 인형처럼 걷고 있었다. 그는 자기가 갈 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언덕길로 접어들었다. 무너진 집더미가 어둠 속을 짐승처럼 서 있었다. 거기서 밤고양이가 울었다. 언제든 그 고양이는 이만쯤이면 불도 없는 그 폐허에서, 녹슨 철근이 하늘을 그물처럼 엮고 있는 그 폐허에서 울었다. (p.19)

- 허나 그는 술 취한 사람 특유의 자기 나름식 안이한 낙관에 자신을 맡겨버렸다. (p.19)

7. 에피소드의 적절성

- 오른손 없는 외팔이 사내가 아이의 목을 조른 일 (p12~13)
- 평양집에서 노래 부르는 아이의 모습과 곡마단 소년처럼 자신의 혀에 담뱃불을 끈 일 (p.14~15)
- 길가에 쓰러진 주정뱅이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서 술을 먹은 일 (p.17~19)

8. 인물분석
<아이>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는 6.25 전쟁으로 부모와 자신의 터전을 잃은 동시에 앞으로 살아갈 미래까지 잃고 이미 퇴폐한 어른이 된 듯 살아간다. 현실의 비참함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구레나룻 사내>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구레나룻을 기른 사내는 술만 취하면 늘 웃는다. 전혀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마냥 웃기만 하는 그의 모습은 애처롭다. 사내는 불행한 자신의 인생을 웃어넘기지 않으면 차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삶 자체에서 스스로 멀어져 관조하는 듯 보인다.

<외팔이 사내>
외팔이 사내는 나무 인형을 깎으며 사는 칼잡이다. 외팔인데다 걷어 올린 팔뚝에 문신이 거뭇거뭇한 것으로 보아 그간의 인생이 그리 순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내는 아이를 통해 자신의 비참한 삶을 엿보았을 것이고 그리하여 아이의 목을 조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내는 결국 아이가 아닌 자신에게 나이프를 꽂았다. 술주정뱅이 꼬마를 편히 죽여준다고 하는 대사에서 짐작할 수 있듯, 그는 고생하며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편하게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9. 대화술
아이의 평안도 사투리는 주변과의 이질감을 잘 나타내 주는데, 이는 막막한 현실을 극대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아이가 희망이 없는 이방인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사투리가 사용되었다.

10. 주제
휴머니즘, 인간 근원의 외로움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